

## Contents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해운얼라이언스 선사, 작년 계열사 터미널에서 평균 1,392만 TEU 처리



### 물류정책·산업동향

1. JD그룹, 5G 스마트 물류단지 공개
2. DHL Express, 토론토 시설 확장 예정
3. UPS, 드론 이용 의료용품 배달 협약 체결
4. DHL SC & GF, 2018년 글로벌 포워더 1위 수성

### 명사 스피치

“양지 뒤에 그늘이 있듯이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가 미래 택배시장에 대한 긍정적 성장 전망 이면에는 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택배 과포장과 오배송, 물류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등 그늘진 부분이 존재한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2019. 10. 29. / 코리아쉬핑가제트 기사)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해운얼라이언스 선사, 작년 계열사 터미널에서 평균 1,392만 TEU 처리

해운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의 지분보유 GTO 및 처리물동량(2018년 기준)

		2018년 기준 지분보유 터미널 이용 물동량 (백만 TEU)	지분보유 터미널 수	터미널 당 평균 처리 물동량 (백만 TEU)
2M alliance	APMT(Maersk)	42.8	59	0.73
	TIL(MSC)	26.5	37	0.72
	Hyundai	4.1	8	0.51
	<b>"2M" total</b>	<b>73.4</b>	<b>104</b>	<b>0.71</b>
Ocean alliance	CMA CGM	13.0	35	0.37
	China Cosco Group	46.1	50	0.92
	Evergreen	8.5	12	0.71
	<b>"Ocean" total</b>	<b>67.7</b>	<b>97</b>	<b>0.70</b>
THE alliance	NYK	3.7	14	0.26
	MOL	3.0	11	0.28
	K Line	2.4	7	0.35
	Yang Ming	2.4	5	0.48
	Hapag-Lloyd / UASC	0.6	1	0.65
	<b>"THE" total</b>	<b>12.2</b>	<b>38</b>	<b>0.32</b>

자료 : Drewry, Global Container Operators Annual Review and Forecast 2019, p.27.

\* 다수의 선사가 동시에 특정터미널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분보유 터미널 수는 중복집계 될 수 있음

\*\* 물동량은 지분율로 환산한 물동량임

- 지난해 세계 3대 해운 얼라이언스(2M·Ocean·THE) 소속 각 선사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GTO(Global Terminal Operator)를 이용한 실적은 GTO 당 평균 1,392만 TEU, 선사 당 지분 보유 터미널 수는 평균 21개, 터미널 당 평균 처리물동량은 54만 TEU로 나타남  
- 특히 2M의 Maersk Line과 Ocean 얼라이언스의 China Cosco Shipping은 지난해 각각 4,280만 TEU와 4,610만 TEU를 계열사 GTO에서 처리함
- 글로벌 해운컨설팅기업 Drewry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GTO들의 비즈니스 포지셔닝은 독립된 순수 하역사에서 점차 계열사 선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음
- 한편 선사 물동량 및 GTO 규모가 큰 2M과 Ocean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 및 계열사 GTO는 THE 얼라이언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터미널 투자 및 물동량 유인 기회가 큼

참고자료 : Drewry Maritime Research,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2019, (검색일: 2019.11.4.)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ghkim@kmi.re.kr



## JD그룹, 5G 스마트 물류단지 공개

- 2019년 10월 29일 개최된 “글로벌 스마트물류 서밋”에서 JD그룹이 베이징야이(北京亚一) 스마트물류 운영센터에 소개하는 ‘5G 스마트 물류단지’를 공개함
  - ‘서밋’에서 JD그룹 CEO 왕전후이(Wang Zhenhui)는 이 물류단지는 중국 최초의 5G 스마트물류 시범단지로서, JD그룹이 중국 3대 이동통신 사업자와 함께 개발한 ‘5G+IoT+AI’를 핵심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 LoMir를 기반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JD그룹이 5G 네트워크 기반의 물류단지를 통해 현장 운영을 강화하고 산업 사물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5G 스마트 물류단지’에는 ‘5G+고화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5G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게차 및 팔레트의 위치 및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이 있는 경우 사전 경고가 발송됨
  - 예를 들어 잘못된 위치에 주차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주행경로를 이용한 지게차를 감지함으로써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 JD Logistics는 대량의 팔레트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수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밝힘
- 물류단지에 구축된 5G 시스템은 물류단지 진입차량을 가장 적합한 주차 공간 또는 도킹 베이 (Docking Bay)로 안내하는 스마트 파킹, 상품의 트럭 상하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도킹 베이를 통해 물류단지 내 운영효율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JD Logistics의 물류단지 총괄책임자인 저원밍(Zhe Wenming)은 5G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초저지연, 초고속, 광범위한 동시 연결 지원 기능은 전례 없는 수준의 실시간 연결을 생성하여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핵심인 풀필먼트 운영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 밝힘

■ 참고자료 : <https://www.zdnet.com/> 2019.10.29.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 DHL Express, 토론토 시설 확장 예정

- 토론토 해밀턴 국제공항에 위치한 새로운 토론토 기반 시설 확장에 1억 달러를 투자해 2021년 까지 완공할 계획
  - DHL은 1억 달러를 투자해 기존 시설을 4배 크기인 20만 평방피트로 확장해 시간당 15,000개의 패키지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분류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임
  - DHL은 2008년에 해밀턴 국제공항에 처음 진출했으며, 지난 4년 동안 항공기 및 화물 처리능력을 늘리고 에드먼턴과 위니펙의 시설을 확장하는 등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음
- DHL은 해밀턴 국제공항에 투자해 화물 처리능력과 기능 향상을 통해 화주에게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힘
  - DHL Express Canada의 CEO인 Andrew Williams씨는 해밀턴 국제공항이 24시간 착륙 가능하고 현장 전용 캐나다 국경서비스 기관, 온타리오 주의 화물 허브가 될 미래의 성장성을 고려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최선의 공항이라고 전했음
  - 또한, DHL은 2014년 이후 캐나다의 일일 적재량이 2배로 증가했으며, 캐나다의 월간 물동량 중 60%를 해밀턴에서 처리해 해밀턴 국제공항은 DHL Express 캐나다 지점에서 최대 규모이며 증가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음
- 지난 10월 30일 Uber Freight 또한 자사의 화물운송 주선 어플리케이션이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을 밝힘
  - 이미 Uber freight는 온타리오와 퀘벡에 있는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와 트럭 운송 업체의 국내 화물 운송을 주선하고 있으며, 몇 달 안에 캐나다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 전했음
- Uber Freight의 플랫폼이 트럭 운전자가 부족하고 물동량이 제한된 캐나다 시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북미 전역의 공차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힘
  - 미국의 트럭 산업은 800억 달러 규모이며 화물차량이 약 2백만 대에 달하지만, 캐나다는 약 169천 대이며 캐나다의 트럭 산업은 680억 달러 수준임
- Uber Freight는 또한 미국과 캐나다 간의 화물운송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음
  -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따르면 2018년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은 총 7141억 달러로 추산되며 대부분 트럭으로 운송됨
  - 2013년 미국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에서 51%가 트럭으로 운송됨

■ 참고자료 : businessinsider.com, 2019.10.30 / logisticsmgmt.com, 2019.11.01

오연실 연구원

051-797-4607, ohys@kmi.re.kr

## UPS, 드론 이용 의료용품 배달 협약 체결

- UPS(United Parcel Service)가 헬스 케어 그룹과 드론 배달 협약을 체결함
  - UPS는 성장하는 의료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FedEx, Amazon 등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최초의 상업용 드론 운용에 대한 미연방항공청(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승인을 획득함
  - FAA 승인 획득 이후 UPS는 CVS Health Corp.과 드론을 이용한 의료용품 배달 협약을 체결함
- UPS는 CVS와의 협약을 통해 의료용품 배송에 대한 드론의 활용성을 평가할 예정임
  - UPS는 유타 대학 병원에서 의료샘플, 의료용품, 처방전 등과 같은 화물 배송에 드론의 활용성을 검토할 예정임
  - UPS에 따르면 혈액, 의료샘플, 의료용품 등은 가볍고 크기가 균일한 경향이 있어 드론을 활용한 배송에 적합하며 이러한 품목은 전자상거래의 배송보다 빠른 처리시간이 필요함
  - UPS의 Dan Gagnon 헬스 케어 물류·마케팅 및 전략 담당 부사장은 이러한 시도는 매우 훌륭한 조치이며, 특히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 대해 중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Gagnon 부사장은 또한 UPS가 지난 3월 의료제공 업체인 WakeMed Health & Hospitals의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캠퍼스에서 무인 드론을 통해 의료 용품을 공급한 후 최소 19분 이상이 소요되던 기존 도로를 이용한 배달시간을 3분으로 단축했다고 강조함
- CVS와의 프로젝트는 UPS의 드론 배송 서비스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임
  - Gagnon 부사장은 솔트 레이크 시티에 있는 유타 대학교 보건 캠퍼스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CVS와의 프로젝트가 UPS의 B2B 서비스를 B2C 영역으로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UPS는 Kaiser Permanente와의 드론 물류 프로젝트를 통해 드론이 Kaiser Permanente의 39개 병원 건물 간의 의료용품 배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임
- UPS는 드론을 통해 물류창고에서 병원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UPS는 의료용품 유통업체인 AmerisourceBergen Corp.와 협력해 드론을 이용해서 창고에서 병원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s://www.wsj.com/> 2019.10.21.

안승현 전문연구원

051-797-4693, shan@kmi.re.kr

## DHL SC & GF, 2018년 글로벌 포워더 1위 수성

- 3PL(3자물류) 시장조사 및 컨설팅 회사인 미국의 암스트롱 & 어소시에이츠(A&A)가 2018년 글로벌 화물 포워더(Freight Forwarder) 종합순위 상위 25개사를 발표했음(2019년 10월 9일)
  - 순위 산출은 각 기업의 3PL 부문 매출액, 해상 컨테이너 및 항공 화물 처리량을 기초로 종합 평가하며, 수치는 각 기업이 공표한 사업보고서 및 A&A 추정치에 근거함
  - 각 기업의 매출액 산정 시, 달러 환산은 연간 평균 환율에 근거하고 있음
- 독일의 DHL 서플라이체인 앤 글로벌 포워딩(이하, DHL)이 전년에 이어 1위 자리를 수성
  - DHL의 경우, 최근 화물 선별을 진행함으로써 해상 컨테이너 및 항공 화물 처리량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종합 평가에서는 1위 자리를 지킴
  - 스위스의 퀴네 앤 나겔(K&N)이 해상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1위를 기록했으며, 종합 평가에서 DHL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함
  - 올해 판알피나(Panalpina)를 통합한 덴마크의 DSV가 전년 5위에서 3위로 부상했으며 향후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CH 로빈슨은 매출액과 물동량 모두 크게 증가하며 전년 15위에서 9위로 6계단 상승했고, 홍콩의 케리 로지스틱스 역시 전년 17위에서 11위로 6계단 수직 상승했음
  - 일본의 제3자물류기업은 25위권 내에 일본통운, 긴테츠 익스프레스, 유센 로지스틱스/NYK 로지스틱스, 히타치 물류 등 4개 업체가 진입해 있으며(일본우편 산하인 오스트레일리아의 톨 그룹을 포함하면 5개 업체), 해상 컨테이너 화물과 항공 화물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했음(14위 긴테츠 익스프레스 제외)
- 이번 A&A가 발표한 글로벌 화물 포워더 종합 평가 순위에서 국내 기업은 상위 25위권에 포함되지 않았음
  - 전년 24위 한국의 CJ로지스틱스(CJ대한통운), 25위의 서일본철도가 순위 밖으로 떨어졌으며, 대신 룩셈부르크의 로그윈, 뉴질랜드의 메인프레이트가 25위권 내에 진입했음
  - 하지만 CJ로지스틱스의 2018년 3PL 부문 매출액은 56억 1,800만 달러로, 글로벌 3PL 기업 매출 순위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19위를 기록했음





A&A가 공표한 2018년 글로벌 포워더 상위 25개사

순위 (전년순위)	회사명	본사 소재지	3PL 매출액 (백만 달러)	해상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TEU)	항공 화물 처리량 (톤)
1	(1) DHL Supply Chain & Global Forwarding	독일	28,120	3,225,000	2,150,000
1	(2) Kuehne + Nagel	스위스	25,320	4,690,000	1,743,000
2	(3) DB Schenker	독일	19,968	2,203,000	1,304,000
3	(5) DSV	덴마크	12,411	1,442,348	689,045
4	(4) Sinotrans	중국	10,549	3,740,000	530,100
5	(6) Expeditors	미국	8,138	1,167,820	1,011,563
6	(7) Panalpina	스위스	6,156	1,484,100	1,038,700
7	(8) Nippon Express	일본	18,781	686,206	899,116
8	(9) UPS Supply Chain Solutions	미국	9,814	600,000	935,300
8	(10) Bolloré Logistics	프랑스	5,415	873,000	690,000
9	(15) C.H. Robinson	미국	16,631	1,000,000	225,000
10	(11) CEVA Logistics	네덜란드	7,356	786,600	476,600
11	(17) Kerry Logistics	홍콩	4,875	1,196,607	409,127
12	(13) GEODIS	프랑스	6,645	798,173	363,451
13	(12) Hellmann Worldwide Logistics	독일	3,646	901,698	578,007
14	(14) Kintetsu World Express	일본	5,310	700,043	600,849
15	(18) Yusen Logistics/NYK Logistics	일본	4,715	815,000	380,000
16	(19) Agility	쿠웨이트	4,400	710,000	415,000
16	(16) DACHSER	독일	7,602	536,900**	344,900
17	(20) Hitachi Transport System	일본	6,283	532,000	300,000
18	(21) Damco/Maersk Logistics	네덜란드/덴마크	6,082	639,132	175,502
19	(22) Toll Group	오스트레일리아	5,980	503,400	106,600
20	(23) XPO Logistics	미국	10,850	131,500	72,600
21	- Logwin	룩셈부르크	1,346	600,000	180,000
22	- Mainfreight	뉴질랜드	2,038	342,741	127,418

자료 : 일본해사신문, A&A(암스트롱&어소시에이츠) 홈페이지

주 : \*\*는 LCL(혼재화물)을 포함한 수치

참고자료 : secure.marinavi.com, 3plogistics.com 2019.11.4.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